

이순신 일대기



이조 선조때의 명장으로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 본관은 덕수, 영종추부사 변의 후손으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의 셋째 아들로 서울 건척동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용맹하여 전쟁놀이에는 항상 대장이 되었으며, 동네에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그가 나서서 해결지음으로 동네 사람이 다 두려워 하였다. 장성하면서 그는 뜻을 무예에 두어 기사를 연습, 훌륭한 재능 연마하였다.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종사로 처음 관직에 나섰으며, 발포만호를 거쳐 1586년에 사복시주부가 되고 이어 조선 만호겸 녹도 둔전사의가 되었다.

이 때 이순신은 국방의 정화를 위하여 병력의 증강을 요구하였으나 절도사 이일에 의하여 부결되었으며 그 해 가을 적은 병력으로 호인이 침입하여 많은 양민을 학살하니 순신은 홀로 이를 맞아 싸워 포로 60여명을 잡아드렸다. 이일은 피해의 책임을 순신에게 돌려 그를 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무죄가 판명되어 해임으로 그쳤 . 그 후 전라도 순찰사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 조방장, 선전관 등이 되고, 185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에게 추천되어 고사리 첨사로 승진, 이어 절충장군으로 만포첨사, 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47세 되던 해 전라 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 때 그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이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거북선을 만들어 전쟁에 임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패장 원균의 요청을 받아 함대를 이끌고 적의 수군과 싸워 이를 도처에서 격파하였다. 즉 제1

차는 옥포, 적진포에서 제2차는 사천, 당포, 울포에서, 제3차는 한산도 안골포에서, 제4차는 부산포에서 적선을 모조리 격파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한산도와 부산포의 싸움은 유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일본군은 결정적 타격을 받고, 순신은 완전히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그의 위대한 지도력과 탁월한 전술로 인한 것이며, 조정에서는 위의 공으로 그에게 정현대부의 벼슬을 주고 최초로 수군통제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순신의 고을 시기하는 원균 일파와 일본의 이간책으로 1559년 2월에 서울에 압송, 고문 끝에 사형을 받게 된 것을 판중추부사 정탁의 반대로 사형이 면제되어 4월 1일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되었다.

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된 원균은 안일과 방탕한 생활로 군비를 소모, 정유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군과 대항하여 싸웠으나 대패하고 전사하니 수군은 전멸상태에 빠졌다. 사태의 긴급함을 느낀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 적을 막게 하였다. 이대 그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나 이를 돌볼 겨를도 없이 임지에 도착하니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고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저락되어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적은 병력으로는 적을 대항하기 어렵다 하여 수군을 폐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의 수군을 허술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고, 다가오는 전투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8월 15일 적의 대부분을 명량에서 대파하여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고 명나라의 뇌물을 보내어 화의를 꾀하였으나 순신은 이를 반대하고 도요토미가 죽어 일본군이 철수하자 마지막 결전을 시도하여 11월 18일 노량에서 적을 섬멸하였다. 그러나 이 때 이순신도 적의 유탄을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니 이 때에 그의 나이 54세였다.

유언에 따라 그의 죽음을 발표치 않고 끝까지 잘 싸워 막심한 손해를 입혔다. 순신은 그 지극한 효성 숭고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보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임진왜란 중 국가의 운명을 홀로 지탱한 민족적 은인이었으니 명나라 진인도 그를 칭찬하고, 또 그 죽음을 듣자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이 소식이 중앙에 알려지자 선조는 특사를 보내어 이를 조문, 시호를 내리고 선무일등공신의 호를 주어 덕풍군에 봉했으며, 우의정 및 좌의정을 추증하였다. 고향에는 충신문을 세우고 정조때에는 영의정을 추증, 임금이 친히 지은 비문을 하사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지금으로부터 450여년 전 조선 12대 임금인 인종 원년 4월 28일에 한성부

건천동에 사는 한 가난한 선비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은 가난하지만 엄격한 집안에서 태어난 순신은 굳고 정직하게 자라났다.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지도력이 강했던 순신은 마을 어린이들과 전쟁놀이를 할 때는 항상 대장이 되어 앞에 나아갔다. 그러나 마을에서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 순신이 대장으로 나서는 것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아이들은 순신을 대장에게서 몰아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순신을 대장에게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의 작은 몸집에서 풍기는 위엄과 날카롭고 매서운 눈매에 그들은 감히 아무말도 못하고 순신을 그들의 대장으로 섬기었다고 한다.

선장하면서 의로웠던 순신은 마을에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였다. 마을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순신이 달려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해결을 지어 주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순신이 정의롭고도 두려운 존재라고 하였다.

장성하면서 그는 뜻을 무예에 두어 기사를 연습, 훌륭한 재능을 연마하였다. 1576년 무과에 급제하여 권지훈련원 봉사로서 처음 관직에 나섰으며, 발표만호를 거쳐 1586년에 사봉시주부가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47세가 되던 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 때 그는 전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대비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사사로운 것을 함부로 보아 넘기지 않아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어 냈다.

어느날 오후 이순신은 관훈등의 한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친구의 집 마당에는 조그마한 못이 있었다. 이제독은 친구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이야기하던 중 물가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다. 물 속에서 헤엄치는 많은 물고기 중에서 고개를 물 위에 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작은 거북이가 그의 눈에 띄인 것이다. 그는 한참동안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제독은 그 거북이에서 암시를 받아 거북선이라는 철갑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선조 25년 3월 27일, 드디어 거북선이 완성되어 진수식을 가지는 날이 되었다.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은 저런 무거운 쇳덩어리는 물에 뜨지 않고 가라앉을 것이라고 썩군거렸다. 그러나 거북선은 예상을 뒤엎고 빨간 불을 내뿜으며 물을 헤치고 쏜살같이 나갔다. 그 후 보름이 지난 4월 22일 실제로 싸움에서 위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순신은 나라를 위한 지극한 충성과 청렴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한국 역사상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 되었으며 임진왜란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몸을 바친 민족적인 은인이 되셨다.

이처럼 다급하던 시대에 분연히 나타나 나라와 겨레를 한 몸으로 구한 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 앞에 여지없이 패망한 쓴 잔을 들고 출항량을 놓았던 왜적들마저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손꼽는 이가 바로 장군이다. 백의종군을 하면서 명령만 내리면 아무 말 없이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쳤다. 그래서 더욱 위대한지도 모른다. 장군의 충성심에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진다. 넓은 언덕이 있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들리는 소리는 아이들의 고향 소리와 칼 부딪히는 소리뿐.

여기의 아이들은 지금 전쟁 놀이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었다. 나이로선 글 공부를 할 때지만 문보다는 무쪽을 택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장군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기에 오늘도 해가 저물도록 무술 연마에 여념이 없었다. 이윽고

"얘들아! 오늘은 그만 하자."

하는 굵직한 음성이 들리자 아이들의 동작은 서서히 집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까의 굵직한 음성의 소년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않고 다시 칼을 집어 들더니, 혼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유난히도 눈빛이 빛났고, 보통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넓은 도량터였다. 이 소년이 다른 아님 순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순신을 전부터 시기 질투하고 있는 소년이 있었으니 그는 오늘도 순신의 뒤에서 순신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 놈을 골탕 먹일까?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혼을 내줘야 해."

"그런데 어떻게 골려줄까? 나한테 꿈쩍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튿날, 또다시 전쟁놀이를 하려고 모였던 소년들, 원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어제의 소년에게 옆의 소년이 다가갔다.

"너, 아까부터 뭘 생각하니?"

"상관마! 내가 기필코 혼내 줄테니까."

"아니, 누굴 혼내 준다는 거야?"

"재, 순신이 말야, 그냥 한둘꺼야."

"왜 그래? 그리고 너, 함부로 말하지마. 순신이가 어떤 앤데....."

"뭐야, 순신이 놓이 원데 지가 잘났으며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갔던 날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자리에서 혼자 무술 연마에 힘쓰는 순신 앞에 짓궂은 소년이 나타났다.

"야, 순신아... 너 아주 못쓰겠드라. 하는 태도며 말투가 영 내 맘에 안들어."

"그래서 애긴데 내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와 나는 실력대결을 하는거다..."

하는 소년의 말에 일종의 안도감마저 드는 것이었다. 얼마전에 아이들한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이 자기한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단니 애기의 결과가 쉽사리 찾아와 주었기 때문이다.

다시 동편에서 동근해가 떠오른 날 빙 둘러 쌓인 아이들 속에서 두 소년의 실력 대결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실력이 기필코 순신의 실력을 꺾어 승리감에 젖어야겠다는 짓궂은 소년과 얼굴에 만반의 미소를 띠우고 태연자약한 순신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한 바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딱!"

"딱!"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순신은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다.

"이 소년의 실력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소년의 헛점을 정통으로 찌르니 턱하는 소리와 함께 소년의 칼은 나뒹굴게 되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랄게 질린 소년의 칼은 나뒹굴게 되었던 것이다. 얼굴이 새파랄게 질린 소년은 무릎이 저절로 순신 앞에 꿇겨짐을 느꼈다. 이윽고 험악했던 공기가 가라앉자 아이들의 눈은 자연스럽게 순신에게 쏠리게 되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개의치 않은 순신은 어깨를 잠시 주저하더니 무릎을 꿇고 있는 소년 앞에 칼자루를 던져 놓고, 소년의 어깨를 탁탁치곤 말없이 언덕을 내려갔다. 멍하니 앉아 있던 소년은 패배감에서 오는 수치감과 순신이의 태도에서 오는 고마움이 한데 엉켜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내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난 다만 아이들이 순신이를 존경하기에 그것이 아니꼬워서 해 본 장난인데...."

그리고 잠시나마 순신이를 미워했던 자신이 한없이 저주스러웠다.

이후 소년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순신이를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순신 또한 그 소년에게 잘 대해 주니 그들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깊은 우정을 갖게 되었다. 언제나 순신이와 그 무리들의 고향 소리가 맑게 산을 울리고 있었다.

소년 시절부터 언제나 침착하고 생각이 많은 장군이였다. 결과, 이 민족의 위기를 구하고 역사를 빛낸 성웅으로 떠받들게 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 관할인 발포만호로 부임한 것은 그가 서른 다섯 같이 되던 7월이다. 그가 발포만호가 되자마자 그의 상사들은 대뜸 그를 죄주려고 애를 썼다. 당시 전라감사였던 손식이라는 자가 능주를 순시한 일이 있었다. 감사는 누구의 모략을 들었는지 발포만호 이순신 장군에게 즉시 능주로 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꼭 죄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지의 일반적인 것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시켰다. 그리고 발포의 진지의 배치에 대하여 그림으로 그려 표시 설명하도록 명했다. 요즈음의 작전상황도를 그리게 한 것이다.

이 갑작스런 기습 질문에도 이순신 장군은 상세하고 정확하게 상황도를 그렸고 이를 굽혀본 감사는 도리어 자기의 양심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임오년 봄, 이순신 장군의 나이가 서른 일곱이었을 때, 중앙에서 군기검열관이 발포에 와서 군장비를 검열하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아주 나쁘다 하였다. 그리하여 이순신 장군은 파면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달라서 발포의 병기는 정말로 잘 되어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에는 전날에 훈련원에서 부당한 지시를 상관으로부터 명령받았을 때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잘해 놓고도 파면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그보다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오동나무에 열킨 슬픈 사연이다.

만포만호영의 뜰에는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다. 당시 수사로 있던 성박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그 오동나무를 베어 가려고 하였다. 열빠진 전라수사가 잘 자란 그 오동나무로 자기가 즐길 가야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한마디로 안된다고 거절했다. 이 오동나무는 관청의 물건이다. 저것이 저만치 크기에는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곳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길러낸 것인데 개인의 사물인 가야금을 만들기 위하여 하루 아침에 베어 버린다. 절대 안될 말이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쥘

구멍을 찾아야 할 판인데 성박은 도리어 격노하였다. 그는 필시 이렇게 놔둘 것이다.

"천하에 고약한 이순신 이놈, 고약한 놈!" 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고약하고 껄뻐한 것은 전라좌수사 성박이란 자가 아닐까?

누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이순신은 처세술에 서투른 사람이라고 상사인 수사가 가야금을 좋아하는 눈치만 보이더라도 즉시 관물이건 뭐건 오동나무만 베어다가 바치면 자리가 안정되고 출세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러나 일개 오동나무가 문제되는 것은 그 시대의 조류인 것이다. 아무리 정직하고 자기 직무에 정성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실은 반포만호였던 이순신 장군은 간접적으로는 오동나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당하고 만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탄할 일이다. 예나 지금이나 부조 타는 있었던 것 같고 이를 빨리 추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라 생각된다.

정의로운 사회구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공공물건 이건 남의 물건이건 내 물건처럼 아끼는 생활태도가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되겠다.

총무공의 애국애족, 영결무사의 정신에 머리가 숙연해진다.

남산골짜기부터 개나리, 진달래와 같은 봄꽃들이 싱그럽던 청춘을 지나, 하나 둘 나무에서 꽃잎들이 떨어지는 초여름 어느날 이었다.

가을이 아닐까 하는 착각을 만들게 하는 하늘에는 구름 한점이 없었다. 여수 앞바다 먼 수평선이 있는 곳은 여기저기 고깃배들이 평화롭게 떠 있었다. 싱싱한 고기들이 갑판 위에서 날뛰고 어부들의 입에선 뱃노래가 저절로 흘러 나오기 시작할 무렵, 동쪽의 앞바다에서 갑자기 광 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듯하더니 맑은 하늘에 연기가 치솟았다. 어부들은 많이 들어온 대포 소리가 무심히 고개를 들어 동쪽 앞바다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예전에 보아온 대로의 배에서 쏘는 대포가 아니라 이상한 것이었다.

전에 쏘던 대포는 큰 배위에서였고 그곳은 갑판 위라서 난간이 둘러져 있을 뿐이고 가리워진 것이 없어서 대포는 물론 쏘는 사람까지 다 볼 수 있었는데 지붕이 둘러져 대포는 옆구리에 달려 있었다.

"아니, 저게 뭐야. 물에 떠있으니 배 같긴 하나, 저런 배도 다 있나?"

"아니 저거, 용대加里 같은데 연기가 나오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잠시 후에 그 물체의 문이 열리더니 이순신의 다른 배로 옮겨 댔다. 그리고는 그 물체를 둘러보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었다. 이순신이 신호를 하자 그 물체는 또 움직여 가면서 대포를 쏘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검은 연기와 불을 뿜어 대머물 위로 미끄러져 갔다. 장엄하고 능률한 모습에 모여든 군중들이 함성을 질러 해변가는 삼시간에 소란속에 잔치를 벌여 놓은 듯 했다.

용의 머리에 거북이 몸통을 가진 그것이 바로 거북선이다. 천근 만근이 되는 쇳덩이가 내리눌러도 끄덕하지 않을 것 같은 철갑선이다. 갑판이 없이 지붕을 만든 그 위엔 널빤지로 두 겹께 지붕에 얹고, 또 철판으로 붙여 총이나 화재에 끄덕않고 또 그 위에 뾰족하게 칼이나 송곳을 꽂아 지붕 위로 적들이 오르지 못하게 했다. 거북선 안에는 대포와 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그토록 철저하게 적선을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직접 계속해서 고치고 다듬었다.

그러던 어느날, 부산 앞 바다에서 새까맣게 적이 몰려왔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인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던 우리나라는 그저 앉아서 당하기만 할뿐이었다. 정발 장군과 송상현, 신립 등이 목숨을 바쳐가며 용감히 싸웠으나 워낙 허술한 장비와 갑작스런 일로 미처 대항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이순신은 선견지명이 있어 전쟁에 대항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덕분에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싸움인 옥포해전에서 크게 승리했다. 이순신 장군은 사천지역에 위험함을 전해 듣고, 사천을 향해 갔다. 거북선을 앞세우고 쳐들어간 이순신 장군은 적군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고 갔다. 거북선을 적선 한가운데로 몰고 가서 양쪽의 옆구리로 대포를 쏘아 댔다. 머리와 꼬리에선 시뻘건 불길을 내뿜어 적들은 하늘이 어딘지 구별을 하지 못했다.

"무슨 배가 저래. 괴상한 것 다 보겠네."

적들은 다만 입을 딱 벌릴 뿐이었다. 우왕좌오아, 갈팡질팡, 적들이 흩어지고 배들이 침몰되었다. 철판으로 덮어놓은 거북선은 조총이나 불 따위에 끄덕도 하지 않았다. 왜군들이 안간힘을 다하여 대항하였지만, 그때 그때마다 거북선이 유유히 적선 사이로 떠 가며 적선을 침몰시켰다.

날이 저물어서야 격전은 끝나고 바다위에는 부서진 배들이 불타고 있었다. 왜군의 시체들

로 인하여 바다는 피로 물들었고 부서진 조각배를 잡아 타고 도망가는 적군의 모습이 우스울 뿐이었다.

세종대왕은 어질고 현명한 임금도, 연산군, 광해군 같은 폭군도 있었던 조선 또한 추잡한 당파싸움이 나라의 기둥을 무섭데 좀 먹고 뒤흔들었던 시애, 그러나 이 어려운 역사속에 겨레의 빛나는 햇불이시었던 이순신 장군, 장군의 충성의 얼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장군을 생각해 본다. 참으로 그는 캄캄한 겨레의 수난길에 높이 쳐들린 민족의 햇부이요, 역사의 영원한 면류관이다.

학익열진의 개요

- ① 학익열진은 일본대군의 침공에 고심하던 성웅 충무공께서 한산도 앞바다에 학이 내려앉은 꿈을 꾸시고, 이를 형상화한 전략, 전술이다.
- ① 좌우 척후장, 좌우 돌격장을 학의 날개형태로 배치하고, 전, 중, 후부장을 몸체로 하여 전투지형 과 상황에 따라 진(陣)을 변화시키며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했던 해상전술이다.
 - 한산도대첩을 형상화한 그림이 바로 학익열진을 표현한 것임.
- ① 성웅 충무공께서는 학익열진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 사용하셨는데, 목표만의 학익진은 그 가운데 포위형 학익진이라 할 것이다. 학익열진을 친 쪽은 마치 체조에서 양팔 간격으로 벌린 격이다. 따라서 좌우로 걸리적 거리는 것이 없이 선체를 돌려가면서 사격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① 학익열진 중요성은 성웅 충무공께서 창안하신 해상전술을 육상 또는 해상에서 형상화한 철저한 실전형 전술로써 강한 파괴력과 부드러운 리듬등 탁월한 가치를 지녀야할 요건과 전통적인 정서를 두루 갖추고, 표현해 내고 있다.
- ① 학익열진 무예는 총 8천 1백 92가지의 돌궁(품세)을 지니고 있다.
- ① 수상에서 재현 하는데에는 규모를 신축성 있게 조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수 있다.

本 企劃案은

' "무예" 및 "수상", "해상"에서의 성웅 이순신 일대기' 행사를 맞이하여 성웅 충무공께서 창안하신 이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실록을 해상 또는 수상에서 실전을 재연하지만 또는 우리나라이 전통적인 군사전술이며, 무예를 원형대로 복원하여 재현함으로써 충무공께서 간직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계기가 될 목적으로 작성한 기획(안)입니다.